

이승기·차승원·오연서 등 화려한 캐스팅에도

tvN '화유기' 못다 피우고 종영하나

‘홍자매’ 작가가 쓴 낭만 퇴마극
길 잃은 스토리·캐릭터 미흡
초반 방송사고로 이미지 추락
종영 2주 앞두고 시청률 5~6%



이흥기·이승기·오연서·차승원·장광(왼쪽부터)

이승기의 제대 복귀작이고 차승원과 오연서가 손을 잡았다. 이세영, 이흥기, 이엘, 김성오, 성지루, 장광 등 조연도 쟁쟁하다. 하지만 시청률은 5~6%에 머문다. 호화캐스팅이 무색하다. 무명의 연극배우들이 꾸려갔던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1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체면이 안선다.

tvN 주말극 ‘화유기’가 제목에 빛날 화(華), 꽃 화(花)를 내세웠지만, 제목만큼 아름답고 빛나는 여정은 되지 못하고 있다. 종영까지 5회 남았다. 활짝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끝날 것인가. 자체 최고 시청률은 지난달 14일의 6.9%다.

◇ 빛나는 캐스팅 살리지 못하는 이야기... 조연에 무게중심 옮겨가기도

‘화유기’는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서역 여행을 그린 고대 판타지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다. ‘서유기’의 ‘서’(서쪽) 대신, ‘화’를 제목에 내세운 작품이다. 이 ‘화’는 빛날 화(華), 꽃 화(花), 화합할 화(和) 등 다양한 의미를 담았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미남이시네요’ ‘최고의 사랑’ ‘주군의 태양’ 등을 히트시킨 ‘홍자매’ 흥정은-홍미란 작가는 ‘서유기’의 등장인물들을 21세기로 가져와 도심 속 오교와 귀신들의 이야기로 응용, 활용하고 있다.

‘서유기’가 불경을 찾기 위해 서역으로 떠나는 여정이라면, ‘화유기’는 신선이 되고자 하는 우마왕과 천계가 내린 벌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손오공 등 각자 목적이 있는 요괴들의 인간세상 여행기 정도가 되겠다.

제작진은 앞서 이 드라마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낭만 퇴마극”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15부까지 방송된 현재, ‘빛을 찾아가

는 여정’이라는 큰 틀은 실종된 상태다. 매회 새로운 에피소드와 새로운 요괴를 선보이지만, 큰 줄기에서는 제자리를 맴돌고만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우마왕이 대형 연예기획사 사장이고, 신선이 되고자 ‘선행 포인트’를 쌓는 중이며, 저팔계가 톱스타이지만 배신을 일삼는 캐릭터이고, 사오정은 대기업 사장이지만 청소와 요리 등 집안 살림이 취미이자 특기라는 설정 등은 재치가 넘친다.

삼장이 귀신을 보는 여자이고, 마음에 안 들면 여자도 패는 퇴폐적인 악동 손오공이 그런 삼장과 사랑에 빠져 희생적인 순애보를 펼치는 구도도 흥미롭다.

그러나 드라마는 거기까지다. 빛나는 캐스팅과 재기발랄한 캐릭터 설정 덕에 5~6%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엮어내는 이야기는 매끄럽지도 못하고 힘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드라마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게 뼈아프다.

홍자매의 아이디어는 이번에도 유효하다. 코미디도 살아있다. 하지만 스토리는 연속성이 떨어져 톱특 끊어지고, 최근에는 주연보다 조연이 부각되는, 의도하지 않았을 주객전도 현상까지 벌어졌다.

쑤미에서 아사녀로 변신하며 1인2역을 소화 중인 이세영에게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옮

겨가 버리면서 주연들의 역할이 축소됐다. 이야기의 구심점을 상실하면서 벌어진 부작용이다.

◇ 초반 대형 방송사고도 상품성 떨어뜨려

‘화유기’는 지난해 12월24일 방송 2회 만에 두 차례 방송이 지연되다 결국 방송을 도중에 중단해버리는 대형 사고를 냈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국 드라마 사상 최악의 방송사고를 내고 말았다. 결국 이 사고로 ‘화유기’는 시작하자마자 한 주를 결방해야 했다.

삼장이 귀신을 보는 여자이고, 마음에 안 들면 여자도 패는 퇴폐적인 악동 손오공이 그런 삼장과 사랑에 빠져 희생적인 순애보를 펼치는 구도도 흥미롭다.

그러나 드라마는 거기까지다. 빛나는 캐스팅과 재기발랄한 캐릭터 설정 덕에 5~6%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엮어내는 이야기는 매끄럽지도 못하고 힘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드라마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게 뼈아프다.

홍자매의 아이디어는 이번에도 유효하다. 코미디도 살아있다. 하지만 스토리는 연속성이 떨어져 톱특 끊어지고, 최근에는 주연보다 조연이 부각되는, 의도하지 않았을 주객전도 현상까지 벌어졌다.

쑤미에서 아사녀로 변신하며 1인2역을 소화 중인 이세영에게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옮

최민정 쇼트트랙 시청률 55.4%

‘무한도전-토토가 3’ 동시간대 1위

최민정이 금메달을 딴 여자 쇼트트랙 1,500m 경기 생중계 시청률이 55.4%를 기록했다. 전날 쇼트트랙 종목에서 ‘금 수확’이 예측된 만큼 설 연휴에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1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지상파 3사가 밤 9시 14분부터 20분까지 중계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전 시청률은 KBS 2TV 22.1%, MBC TV 13.4%, SBS TV 19.9%로 집계됐다. 3사 합계는 55.4%다.

최민정은 전날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경기에서 2분24초94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서리라고 동메달을 획득한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 생중계(밤 9시 27분~31분) 시청률은 KBS 2TV 23.7%, MBC TV 13.8%, SBS TV 18.8%로 3사 합계 56.3%였다.

영국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남자 컬링 경기 중계(오후 2시 28분~4시 34분)는 KBS 1TV와 MBC TV가 했으며 각각 6.8%, 4.7%의 시청률을 나타냈다. 차준환이 개인 최고 성적을 낸 피겨 남자 싱글 경기 중계(오전 11시 39분~44분) 시청률은 KBS 2TV 7.1%, MBC TV 5.4%, SBS TV 7.4%로 3사 합계는 19.9%였다.

한편 ‘1세대 아이돌’ 대표 H.O.T.의 재결합 순간을 담은 MBC TV 예능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



최민정
무한도전 '토토가3'

은 가수다3’(이하 ‘토토가3’)에 마음만큼은 여전히 ‘소녀’인 팬들의 눈이 쏠렸다.

1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0분 방송한 ‘토토가3’의 시청률은 1부 8.3%, 2부 13.6%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H.O.T.가 17년 만에 ‘토토가3’ 무대를 위해 재결합하고 공연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H.O.T.의 재결합은 데뷔 20주년을 전후로 오랫동안 추진돼왔으나 번번이 좌초됐다가 이번에 어렵게 성사된 만큼 팬은 물론이고 1990년대 그들의 활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큰 기대를 나타냈다.공연 모습은 오는 24일 밤 10시 40분 방송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남아공의 김연아’ 꿈꾼다... 평창올림픽 특집 다큐

KBS 1TV ‘드림걸즈’ 24일 방영

KBS 1TV는 17일 밤 11시 20분과 오는 24일 밤 10시 30분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2부작 다큐멘터리 ‘드림걸즈’(사진)를 방송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타마라 제이콥스는 2005년 한국에서 아이스스케이팅을 처음 배웠다. 강원도가 동계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국가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드림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다.

현재 타마라는 자국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를 맡고 있다. 그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인 동생과 함께 평창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로 뛰기 위해 이번 평창에 왔다.

특히 두 사람은 이번에 ‘롤모델’인 김연아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이들은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을 했던 김연아와 처음 만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기다림 끝에 성화 최종점화가 끝난 다음 날 김연아와 만나는 데 성공했다.

다큐멘터리는 ‘남아공의 김연아’를 꿈꾸는 타마라가 평창을 방문하기까지의 이야기, 김연아와의 만남, 남아공 현지에서의 코치 생활을 담았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40 팔도발상 스페셜 50 인간극장	00 코모닝 평창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영류	2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10 닥터 365 15 해피시스터즈 55 평창 2018
9	15 평창올림픽 라이브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기는 평창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10				
11		15 여기는 평창		
12	00 KBS 뉴스 10 이웃집 찰스(재)			00 SBS 뉴스
1	00 평창올림픽 특선다큐 올림픽 전설과의 대결(재) 50 평창올림픽 라이브			00 평창 2018
2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3		00 자동공부철상 위기 2 30 TV 유치원		
4		00 VJ 특공대(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배틀 트림(재)	00 5MBC 뉴스 15 김경성의 영화 대 영화 30 령경소 1.2.3 스페셜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5 우리말 겨루기	15 2TV 생생정보	25 생방송 빛날	0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재)
7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35 여기는 평창	20 2018 평창동계올림픽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평창 2018
8	25 미유포 사랑해			
9	00 KBS 뉴스 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55 안녕하세요		
11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00 MBC 뉴스데스크 40 평창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평창, 우리의 밤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40 생활의 발견	20 사랑의 가족(재)		30 평창 투나잇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알프스산맥 이탈리아 돌로미티)	09:40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알프스산맥 이탈리아 돌로미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봄동 된장국과 더덕밥)	15:30 오도복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당동영 유치원 1~2(재) 17:15 로보가 폴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토티! 보너하니~4 19:00 로봇 발명왕 라스티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개복치와 과메기)	20:50 세계테마기행 (타이완, 그 섬에 닿으면 1부 타이베이 새해맞이 기행) 21:30 한국기행 (시선기행, 포구에서 1부 섬과 섬 사이, 내가 간다!) 21:50 EBS 다큐프라임 (한반도 대서사시 나무 1부 맹씨행단, 은해나무의 고백)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세계의 눈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24:30 세계의 드라마 (차일드후즈 엔드 3부 - 종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7일(음 1월 4일 壬午)

<p>子</p> <p>48년생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60년생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 72년생 요령 있게 대처해야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84년생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6, 04</p>	<p>午</p> <p>42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이라면 무용지물이다. 54년생 잘 관리해 둔다면 효율성을 높인다. 66년생 숨이 가쁘도록 뛰어야 할 날이다. 78년생 준비하고 있으면 작기에 용처 나타나리라. 90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97, 28</p>
<p>丑</p> <p>49년생 독특한 양상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61년생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든 완전히 무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 73년생 실행을 하고도 빛을 보지 못 할 수이다. 85년생 성성으로써 대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6, 34</p>	<p>未</p> <p>43년생 급히 손질해야 할 부분 보인다. 55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 반갑게 맞이하리라. 67년생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리라. 79년생 지나치다면 남배 보게 될 것임에 반하다. 91년생 고정 관념을 깨야 새로운 것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4, 66</p>
<p>寅</p> <p>50년생 마음에 나가지 않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이익이다. 62년생 마음먹은 대로 결과물을 남겨 된다. 74년생 식상함을 거두고 새로움을 추구하라. 86년생 참으로 어려울 때 우연히 협조자 나타나 물꼬를 트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2, 60</p>	<p>申</p> <p>44년생 소신을 가지고 행하면 능히 감당하리라. 56년생 능력을 과신하다가 오해로 망칠 수도 있다. 68년생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80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70, 28</p>
<p>卯</p> <p>51년생 웅만한 정도가 최적인 국량임을 알라. 63년생 수고로운 일이지 하지만 보람은 있을 것이다. 75년생 전과 똑같은 속성으로서는 발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87년생 기대 이상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9, 44</p>	<p>酉</p> <p>45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호려 앞뒤려서 숨을 죽인 채 대체를 관망하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 57년생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69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81년생 의도한 일은 본래대로 진전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2, 10</p>
<p>辰</p> <p>52년생 인과관계를 따지려 하지 말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64년생 지난 날 인내하며 지냈던 바에 따른 보람을 느낀다. 76년생 회복세로 돌아서리라. 88년생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9, 84</p>	<p>戌</p> <p>46년생 발상에 있어서 유연하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58년생 평상시에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 70년생 안주하려 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해 보자. 82년생 길조가 솟아나면서 만사여의하리라. 행운의 숫자 : 54, 92</p>
<p>巳</p> <p>53년생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 65년생 본의 아닌 인연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77년생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할 입장에서 서서 고민이 크겠다. 89년생 바로 그것이다. 행운의 숫자 : 63, 53</p>	<p>亥</p> <p>47년생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손해를 본다. 59년생 어떠한 구도가 되더라도 소신을 지켜야 하느니라. 71년생 절호의 기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눈 여겨 보아라. 83년생 굳게 닫혔던 문이 신비롭게 열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6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센터 ☎010-9790-8237”